

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신설

# 동물감염병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6억 규모 교육사업 진행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신입생 1명당 500만원 지원

건국대학교는 동물감염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대학원(야간)인 '수의방역대학원'을 신설하고 2020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은 농림식품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0년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동물감염병분야)' 선정에 따른 것으로 충북대 수의대, 전북대 수의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방역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동물 방역 분야를 위해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전문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재난형



건국대 동물병원

동물감염병 분야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80억원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며, 지자체와 대학의 부담금을 더해 총 106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이 진행된다.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석사급 신입생 1명당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22일까

지다. 건국대 류영수 수의방역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인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을 통해 건국대 수의과대학이 더욱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넘어 수의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방역체계 전환에 일부 대학 대면수업 준비

(코로나19)

초·중·고교 13일부터 순차적 등교  
방역체계 맞춰 수업방식 변화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대학의 대면수업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달여 미뤄졌던 초·중·고교 등교를 교육당국이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하면서 대학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3월 개강을 맞은 대학들은 그간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체계에 맞춰 수업 방식을 전개해 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다



대면강의 연기 여파로 텅 빈 게시판 /뉴시스

수의 대학들이 대면 수업예정일을 이날 이후로 연장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 결과, 대면수업 시작 예정일을 5월 4일로 결정했던 대학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직전 조사 기준 46개교에서 17개교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1학기 전체(12개교)와 코로나 안정시까지(13개교)로 연장한 대

학이 증가해 전체 대학의 60.6%인 117교를 차지했다.

코로나 안정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대학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체 4년제 대학 193교 중 72교다. 37.3%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온 대학가에도 수업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체계를 전환한 만큼, 대학들은 이를 대면수업 안정시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학기를 완전히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안정시까지 이어가겠다고 일부 대학이 등교수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 高3, 14일 올해 첫 오프라인 학력평가

4월 학평 경기도교육청 주관  
고3 등교에 맞춰 예정일 연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첫 등교 이틀날인 1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르게 됐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학평을 5월 14일에 치를 예정이다. 본래 4월 학평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고3 학생들이 13일부터 등교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14일로 연기됐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각급 학교에 방역 관련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평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4월 학평은



성적 산출 없이 재택에서 지난달 24일 치러졌던 올해 첫 학평은 '워킹 스루' 방식으로 시험지가 배부됐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올해 첫 학평은 지난달 24일 성적 산출 없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재택에서 치르게 했던만큼 올해 고3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 쌍방향 원격연수 제공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쌍방향 원격연수가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연수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전환기 학부모교육은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입생 자녀의 학교적응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소통 등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에는 강사진 40명 배치된다.

/이현진 기자

##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軍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군대는 공격적이고 용맹한 기질을 지녀야 한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방법도 스텝 없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지역의 국군 GP(최전방 감시초소)가 북한군의 14.5mm 고사총으로 추정되는 화기에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계획된 행동이 있는지, 우발적 사안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정확한 사고분석이 나오기 전에 '우발적 상황'으로 몰아갔다. 당시 시계가 1km 내외로 좋지 않았고 북측의 근무교대 이후 화기점검 시간대였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군 GP는 도발에 부적절한 GP라고까지 언급했다.

국군 GP는 즉각조치 매뉴얼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2차례 걸쳐 실시했다고 하니 대응태세는 훌륭했다. 다만, 시민과 일선 장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 당국이 서둘러 도발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뿐이다.

19년 전 육군 위관장교 시절, 비무장지대를 철수하고 난 뒤 GP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과 후배들은 아찔했던 총기 오발사고 이야기를 내게 자주 했다.

'총기를 정비하다 실수로 중기관총(12.7mm)이 발사돼, 메가폰을 잡고 북측에 오발을 알렸다', '북측에서 오발이라며 수기를 들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렸다'던가 그런 내용이었다. 남북양측GP의 주요화기는

화력계획에 따라 통상 상대방을 향해 고정돼 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오발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 모두 적정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사고 대신 우리에게 언짢은 목소리를 냈다.

사건 다음날인 4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적극 동조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돌리는 입장을 반복했다. 9.19군사합의를 깬 북한은 큰 소리를 치고, 우리 군 당국은 '도발에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건조사는 같은 날 언론사령부 군사전문위원회가 사건발생 GP로 파견한 특별조사팀이 밝힐 일이나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군 수뇌부들이 입으로 실전을 외치면서 가슴으로 심장이 쫄 것쫄 것해지는 쫄보 가슴이라는 것이 이번에 잘 보여진 것 같다. 이를 방증할 예도 최근에 있었다.

지난달 23일 전남 담양의 골프장 캐디가 5.56mm로 추정되는 소총탄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군당국은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군 사격중단이라는 어마 무시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담양 군은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방벽과 골프장의 최단거리는 600m 정도. 현 군사시설보호법은 시설외곽을 기준으로 1km이상 떨어져야 골프장 건립이 가능하다. 같은달 30일 국방일보는 새장같이 큰 권총 탄피방이를 부착한 걸 교육훈련 성과라고 홍보했다. 사격장 바닥에 우레탄을 깔면 안전한 탄피회수도 되고 실전감각도 익힐텐데 말이다. 묵인 개가 더짚는다는게 딱 이런 모습인 것 같다. /captinm@

## 임홍재,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참여

(국민대 총장)

SNS를 통한 참여자 추천 캠페인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임 총장은 이날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자랑스런 우리 국민'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국민은 배려와 단합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희망과 기회로 만들어왔기에, 새로운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명된 사람이 또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SNS 국민 캠페인이다. 임 총장은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학교장, 상명대학교 백용기 총장을 지목했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이 4일 오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국민대